

언제나 사람이 힘이다. 열악한 사회기반시설과 낙후한 경제를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해야 할 광주·전남에선 더욱 그렇다. 대선을 앞두고 진보와 보수가 충돌하고 무책임한 소지역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서도 북쪽의 자신의 분야에 전념하는 각계각층의 '맨 파워'아 말로 광주·전남의 진정한 성장동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광주일보는 창사 60주년을 맞아 '광주·전남 뉴파워 60인'을 선정, 이들이 살아온 삶과 함께 지역민들에게 제시하는 미래 비전을 살펴봤다.

# 광주일보 선정 '뉴파워 60인'

## 행정·복지 전문가 활발한 활동 기대



국회의원 당선자 박혜자(55)  
광주·전남에서 12년 만에 탄생한 여성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대학교수와 전남도 복지여성국장을 거친 행정·복지 전문가. 19대 국회에 입성, 복지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함평 출신 새누리당 비례대표 당선



새누리당 대변인 이상일(50)  
함평 출신 새누리당 비례대표 당선자. 이번 총선에서 당 중앙선 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맡아 총선 승리에 기여했다. 차기 지도부 선출 때까지 대변인으로 활동하게 된다.

## 亞문화콘텐츠 제작·유통 전담



亞문화개발원장 이영철(54)  
광주문화수도의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인 아시아문화콘텐츠 제작 및 유통을 전담할 아시아문화개발원의 초대 수장. 계원대 매체예술과 교수로, 백남준아트센터 초대관장을 역임했다.

## 법조계 내 신망 두터운 진보 변호사



변호사 이광범(53)  
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이상훈(56) 대법관의 동생. 나주 출신으로 진보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창립회원. 2005년 사법정책실장에 임명돼 노무현 정부 시절 사법 정책을 뒷받침했다.

## 바이오신약 개발 원천기술 획득



프라임제약 대표 김대익(45)  
의사 출신 제약회사 CEO. 바이오신약 개발 원천기술 획득. 2000년 매출 10억원 규모 제약회사 인수해 한국프라임제약 설립. 경영 11년 만인 지난해 매출 642억원을 기록해 64배 성장.

## 486그룹 차세대 정치지도자



국회의원 당선자 김승남(45)  
1987년도 전남대 총학생회장 출신. 4·11 총선에서 고흥·보성 선거구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초선이지만, 486세대의 개혁적인 차세대 정치 지도자 그룹으로 분류된다.

## 호남 예산지킴이… 지역 발전 혁신



새누리당 의원 이정현(53)  
제18대 비례 국회의원으로 '호남 예산지킴이'로 통한다. 4·11 총선 광주 서구을에서 40%에 가까운 득표율을 기록, '민주당 일당 독점' 지역구도를 깰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였다.

## 광주·전남 목소리 적극 대변



농어촌공사 사장 박재순(68)  
보성 출신으로 9급 공무원으로 출발, 1급까지 오른 입지전적 인물. 한나라당 전남도당 위원장과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지내며 광주·전남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일조했다.

## 과학비즈니스벨트 등 광주유치 주도



광주상의 회장 박희석(67)  
제20·21대 광주상의 회장 및 대한상의 부회장. 광주 경제계 수장으로 과학비즈니스벨트·상품거래소 광주 유치 활동 주도. 회원업체 증대 활동 전국 우수 표창. 40여년간 어려운 이웃돕기 총 70여억원 기부.

## 디지털가전산업 연구·혁신 선도



전자부품研 본부장 김세영(49)  
광주 디지털정보가전산업 연구·혁신 선도. 최근 3년간 지역 중소기업 764개사에 시설·장비·연구인력 등 지원해 광주 정보가전 산업 매출 8조원에 성장 견인. '전기자동차 클러스터 조성' 주도.

## 야권연대 광주 첫 진보의원



국회의원 당선자 오봉운(54)  
4·11 총선에서 당선된 광주 첫 진보정당(통합진보당) 서구을 국회의원. 1985년 전남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민주노동당 사무총장, 광주시당 위원장을 지낸 정통 진보정당 인물로 꼽힌다.

## 풍부한 기획력 강점 정통 행정관료



강진군수 강진원(52)  
4·11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신임 강진군수. 행정고시 출신으로 전남도 정책기획관, 기업도시 기획단장 등을 역임한 정통 행정관료. 풍부한 기획력과 중앙부처 인맥이 강점이다.

## 초·중등 교육 정통 교육관료



경기 제1부교육감 이진석(49)  
해남 출신으로 목포고와 전남대 영어교육과를 졸업한 후 일본 나고야대학교에서 수학했으며 33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정통 교육관료. 초중등교육 분야 등 다방면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왔다.

## 중소기업… 지역경제 든든한 버팀목



광주은행장 송기진(60)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지역중소기업 지원에 앞장서고 있는 광주은행의 수장. '공생경영'을 대내외에 선포하고 사회 공헌 활동 강화로 '존경받는 은행'으로 거듭나는데 주력하고 있다.

## LED 광소자 융·복합 제품 개발



광기술원 LED본부장 백종협(47)  
LED 광소자 및 융·복합 제품 개발 총괄. 국내 최초 광통신용 수직공진형 반도체레이저·세계 최초 표면방출형 광통신용 반도체레이저 개발. 세계 최고 광소자 개발을 위한 그랜드컨소시엄 총괄 책임자로 선정.

## 청년 정치 스타트… 2030 대변자



민주 청년비례 김광진(30)  
여수 출신. 지난달 청년 비례대표 봉으로 최고위원에 임명됐다. 4·11 총선 최연소 당선자이기도 하다. 민족문제연구소 전남동부지부 대외협력국장과 순천YMCA 재정이사를 지냈다.

## 소신·청렴… 차기정부 역할 기대



국가기록원장 송귀근(55)  
호남 출신으로 몇 안되는 정부 고위공무원단 가운데 한 명. 광주시 기획관리실장과 행정부시장을 지냈다. 뛰어난 소신과 청렴으로 평판이 높으며, 차기 정부에서 역할이 기대된다.

## 영산강사업 성공적 마무리 이끌어



의산국토관리청장 김일평(48)  
순천 출신.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영산강 사업 책임 관리자로 공정률 1위·인명사고 제로 달성을 성공적 마무리. 2011년 청렴시책·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성과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 불황에도 성장세 수도권 공략 박차



호반건설 회장 김상열(51)  
광주에 기반을 둔 지역 대표 주택건설사 CEO. 수도권 공격 경영을 통해 지난해 전국에 7500여 가구를 공급,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도 사상 최대의 실적을 거뒀다. 지난해 KBC광주방송 인수.

## 농협 경제사업분야 진두지휘



농협 경제대표 김수공(58)  
장성 출신으로, 농협의 경제(유통)사업 분야를 총 지휘하는 수장(首長)으로 선임됐다. 전남지역본부 경제부본부장, 중앙회 공관지원부장, 기업고객본부 담당 상무 등을 역임했다.

## 장애인 인권향상·복지 앞장



새누리당 비례 김정록(60)  
화순 출신 새누리당 비례대표 당선자. 지체장애 4급으로 장애인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장애인 인권 향상과 복지에 기여해왔다.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을 맡고 있다.

## 차세대 광주·전남 관료 대표주자



행안부 선진화기획관 정종재(50)  
완도출신으로 서울대 졸업 후 행정에 합격. 정부 고위공무원단으로 광주시 문화관광국장을 역임했으며 프랑스 근무중 소설도 발간. 광주·전남 행정 관료 중 차세대 대표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 검찰 내 대표적 호남 인맥



서울서부지검장 김현웅(53)  
2006년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 재직 당시 법조 브로커 사건 등 주요 사안을 처리했다. 고흥 출신으로 광주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검찰 내 대표적인 호남 인맥 중 한명이다.

## 선박블록 대형화 매년 200% 성장



디에스중공업 대표 김성길(47)  
영암 대불산단 내 선박 블록업체 CEO. 블록 대형화로 조립과정 크게 줄여 경쟁력 확보. 조선산업 불황 속 매년 200% 성장. 엔지니어링·블록·플랜트·발전 수직 계열화.

## 지역상인 입장 대변, 골목상권 지킴이



중소상인 살리기 김용재(41)  
지역 중소상인들의 입장에 대변하며 골목상권 지키기에 앞장서고 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추가 진출을 막아내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차단단체 조례 제정 추진에 힘을 보탰다.

## 희망제작소 등서 시민운동 전개



국회의원 당선자 이학영(60)  
전남대 출신으로 민주통합당 경기 군포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한국 YMCA연맹 사무총장과 희망제작소 등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시민운동 활동의 대부분을 순천 등 전남 동부권에서 해왔다.

## 광주 문화수도 키 잡은 선장



亞문화도시추진단장 김종우(55)  
광주문화수도 조성사업을 총괄 지휘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문광부 문화콘텐츠산업 실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2월 임명됐다. 부안 출신으로 행정을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 합리적 일처리 '특수 수사통'



부산지검 차장검사 문무일(50)  
광주출신으로 광주일고와 고려대를 졸업했다. 대검 중수1부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수원지검 2차장, 인천지검 1차장 등을 역임한 특수수사통으로 이름이 높다.

## 평판광회로 100% 국산화 이끌어



피피아이 대표 김진봉(57)  
교수 출신 CEO. 광주 대표 광통신업체로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 기업 제1호 지점. 평판광회로기술 100% 국산화 FTTH 핵심부품 광파위분배기·광파장분배기 개발. 미국·일본 등 해외시장 70% 점유.

## 자동차강자 전문제철소 구축 주역



광양제철소장 백승관 (56)  
1981년 포스코에 입사해 광양제철소에서 20여 년간 근무. 광양제철소 재강기술 발전 및 조업 안정성 달성을 큰 기여. 자동차 강재 전문제철소 토대 구축 주역.

## DAEMYUNG RESORT NEWS

대명리조트 DAEMYUNG RESORT

골프, 스키, 오션월드, 리조트를 회원권 하나로!

**대명리조트 특별분양 "지금이 절호의 구입기회!"**

엠블호텔 여수 개관기념 특별분양!

가에서 일시불 가입 시 약 10% 할인혜택 및 즉시 회원 앞으로 소유권 등기이전을 할 수 있다. 또한 1/12 지분 등기제 분양이므로 법적 재산권을 보장 받으며, 다양한 회원혜택과 기업자격의 제한도 개인기명, 무기명 및 법인업체 명의로도 분양 받을 수 있다.

대명리조트 회원가입 시 골프, 스키, 오션월드 및 각종 영 이누이월드 시설의 무료 및 할인혜택이 신규 특별혜택으로 이루어져 있다.

택으로 부여되며, 회원가입과 동시에 회원자격이 부여되어 전국의 대명리조트 10곳(설악, 경주, 양평, 홍천, 양양, 변산, 단양, 제주, 여수, 거제)을 회원자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비발디파크는 4계절 내내 색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스키월드, 정규골프장C.C, 오션월드, 퍼블릭 9홀 골프장 등 각종 부대시설과 2,600